

스텝으로 대체할 경우 총 130여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기제어설비부 특수제어정비과는 이번에 개발된 두께측정시스템 이외에도 엑스선 두께측정시스

템, 속도계, 도유량계 등 6개 부문의 특수계측기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각 올해와 내년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내 동정

### 우리나라 핵의학이 또 다시 세계 4위로 부상

지난 6월 18일~2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52회 미국핵의학학회(Society of Nuclear Medicine)에서 우리나라 연재 111편이 발표되었다. 미국핵의학회는 실제적으로 전세계에서 핵의학의 최신 지견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는 전체 발표 연재 1,500편중 7%를 차지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 4위에 해당되는 연재숫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핵의학회에서 2000년 부터 연재수에서 세계 4위가 된 이후 2005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연재수도 계속 증가하여 특히 작년부터는 100편을 넘고 있다.

대학별로는 서울의대가 39편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병원 16편,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16편, 연세의대

14편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핵의학회 회장국으로 이명철 세계핵의학회 회장(서울의대), 정준기 동 사무총장(서울의대), 정수교 동 학술대회장(가톨릭의대), 김종순 동 학술대회 사무총장(방사선보건연구원), 김병태 동 학술대회 학술위원장(성균관의대), 전석길 대한핵의학회 회장(계명의대) 등이 대거 참석하여 내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9차 세계핵의학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의학원에서 개발한 13 MeV 크기 싸이크로트론인 KOTRON이 전시되어 참석자로부터 큰 관심을 일으켰고 학술대회 마지막에 와그너박사의 하이라이트에서 미래의 보급형 싸이크로트론으로 소개되었다.

### 생체용 3차원 단층촬영기 개발..세계 3번째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공동 지원하는 익산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소장 윤권하 교수·원광대 방사선과)가 30마이크로급 해상도를 자랑하는 생체용 3차원 단층촬영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30마이크로급 생체용 3차원 단층촬영기를 개발한 것은 국내 최초이며 미국과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다.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 윤권하 소장은 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개발에 착수한 지 1년여만에 초정밀 생체용 3차원 단층촬영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차세대 과학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분자의학 영상의 중요한 연구장비로 국내외 연구소 및 대학, 제약회사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윤 소장은 “이 장비로 생쥐의 콧속 뼈를 단층촬영한

결과, 일반 단층촬영기로 확인이 어려운 달팽이 모양의 뼈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는 성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연구성과로 미뤄볼 때 인체용 3차원 단층촬영기 개발은 오는 2010년께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연구결과를 8월 중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국제광학기술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과학기술부, 익산시와 공동으로 6년간 265억원을 투입하는 방사선 기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첫 성과가 나와 기쁘다”면서 “이번 성과를 계기로 나노급 CT와 X선 현미경 개발에도 몰두, 전북을 방사선영상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자신문, 2005. 7. 7-